

산업폐기물 처리과정 전산관리

환경공사, 2008년 8월부터 의무화 ... 연간 1200억원 절약효과

모든 산업폐기물의 배출에서 운반,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전 과정의 인수·인계 내용이 전산으로 입력돼 폐기물의 방치나 불법 처리가 99%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.

한국환경자원공사에 따르면, 2002년부터 폐기물처리 과정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<Allbaro 시스템>을 구축해 현재 2만6000개 기업이 이용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08년 8월부터 전산처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23만 기업이 시스템을 활용하게 된다.

전산 시스템을 이용하면 폐기물 인계서를 종이로 써서 우편배달할 필요가 없고 폐기물의 이동 및 처리 현황이 실시간으로 관리되며 단계별로 입력된 수치 오류를 확인해 방치돼 있는 폐기물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.

자원공사는 2006년 63만건의 전자 인계서 중 수치 오류를 찾아낸 뒤 현장 확인작업을 통해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사례 61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.

또 Allbaro 시스템 구축으로 종이전표 작성, 인수인계에 들어가는 연간 비용 1200억원을 절약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7/08/31>